

追慕辭

권이혁 (고하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오늘은 고하선생님의 제 119주년 탄신일입니다. 언제나와 같이 선생님을 떠올리면서 사모하는 많은 분들이 國立顯忠院에 자리 잡고 있는 선생님의 유택 앞에 모여 선생님을 떠올리면서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난해는 참으로 뜻 깊은 해였습니다. 정권이 평화적으로 바뀌었고 건국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이 압도적인 다수표를 얻어 10년 만에 우파정권이 다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도 무던히 기뻐하셨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정권이 시작 된지 얼마 안가서 예상치 않았던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쇠고기 문제로 촛불시위가 성행하더니, 공권력을 위협하는 듯한 사태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가 하면, 건국 기념행사가 양쪽으로 갈라져서 거행되기도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연발했습니다. 작년 말에도 국회가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행동을 취하더니, 금년에 들어와서는 해머로 회의실 문을 부수는가 하면 국회의원이 신성한 본청에서 구타당하는 일들이 연발했습니다. 또한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관이 시위자들에게 물매를 맞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사태가 지난 4월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 위원회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4월 29일 실시되었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0:5로 완패하는 이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이러한 세태를 내려다보고 계신 선생님께서는 “참 한심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승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은 어느 때보다도 선생님이 그리워지고, 선생님의 원대한 建國創業 이념과 經世철학을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 오늘날 전 세계는 백년의 한번이라는 大恐慌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 것은 물론입니다. 금융상황이 문란하고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양산되는 비상시국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인이나 일부 국민들의 몰지각이 눈에 띄는 것이니, 선생님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없는 심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결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유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기필코 해낼 것입니다. 선생님의 굳으신 의지를 우리들은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獨特한 經世方略과 慎重性·豫見性·自立性·

自主性和 더불어 국제협력을 통해, 반드시 난국을 극복해 선생님의 거룩하심에 보답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난 3월 12일 국민원로회의에 참석해서 평소에 느꼈던 소신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한 후 발생한 일련의 사태에 관하여는 앞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하나는 '타이밍'인데 하느님이 대통령으로 됐다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환경이었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둘째는 반대를 위한 반대론자가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사실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위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위와 권위주의는 전연 다른 것입니다. 이명박대통령과 이명박 정부가 권위주의와 거리가 멀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주장입니다. 오늘 추모식에서는 李基秀고려대총장께서 선생님의 약력을 봉독하셨고 김양 국가보훈처장님과 김영일 광복회장님께서 追慕辭를 해주시겠습니다. 또한 정진영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께서 「고하의 경제이념과 해방 후 한국경제의 진로」라는 제목으로 기념강연을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념사업회를 대표해서 이분들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선생님! 대단히 기쁜 소식 두 가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는 만시지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선생님의 生家를 국민교육장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金繩植전 장관님과 종손 宋相現박사는 물론이고 많은 인사들이 뜻을 같이 하여 후원해주시고 추진해주시고 있는 덕분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몇 차례 보고를 올려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선생님의 종손인 송상현박사가 지난 3월 11일 3년 임기의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새소장으로 선출되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갈채와 환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제적 反人類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재판과 처벌을 맡고 있는 세계 유일의 국제형사재판소는, 1998년 7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148개국 대표가 참가해 열린 'ICC 설립을 위한 전권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ICC 협약에 따라, 2002년 7월 출범했으며 본부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사법분야의 UN인 것입니다. 宋박사는 2003년 3월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됐고, 2006년 1월 재선되어 6년 동안 세계평화와 국위선양에 앞장서 오다가, 이번에 국제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재판관 호선으로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국제사법기구 수장이 된 것입니다. 말리의 파투마타 뎀벨레 다아라 재판관과 독일의 한스페터 카울 재판관이 부소장으로 함께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ICC 소장은 국제 재판소 내 운영과 행정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인데, 宋박사는 이일을 가장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한국인 첫 국제사법기구 수장 탄생을 모든 국민이 축하하고 있으며, 도하의 언론미디어들은 기사나 사설의 형식으로 宋박사에게 祝賀와 敬意를 보였습니다. 이명박대통령께서도 '국제평화의 유지'·'법의

지배'·'정의의 실현'을 宋소장에게 당부한 바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감개가 무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손 宋박사를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宋소장은 한국 법조계가 국제사회에 중요한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한국법조인이 세계로 눈을 돌리면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생신을 다시 한번 축하 올리며 계속해서 저희들을 살피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9. 5. 8

記念事業會 理事長 權 彝 赫 再拜